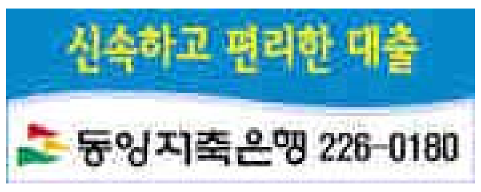

光州日報 Weekend

제1808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6월 7일 (음력 5월 4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8(日)
구름 조금 15/24℃	흐려져 비 16/25℃

News

- 관광명소 된 강진 마량항 ②
- 촛불집회 노래 주권기씨 ③
- 월드컵 축구 요르단戰 ⑱

Books

- 미국 청년의 한국 표류기 ⑭

Entertainment

- 무협사극 일지매·최강칠우 ⑧
- 스포츠 영화가 뜬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청경채 ⑬

"쇠고기 재협상 땐 더 큰 문제 발생"

이대통령, 사실상 '불가론' 천명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와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계속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통상국가인데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상품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각각 수입·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언급,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면서 "과거 일본이 자동차교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율규제에 합의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따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미국도 엔도스(보증)하는 서한에 사인까지 보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민간자율 규제결의와 관련,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한국 쇠고기 수입업계와 미국 수출업계가 함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각각 수입.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결의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5일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자율규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70곳에 물은 결과 90% 가량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편,'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6일 "정부가 제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업체 자율 규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잘나가는 KIA … 무등경기장 '구름 관중' 휴일인 6일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펼쳐진 광주 무등경기장에는 개막경기 때보다 많은 1만8천여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시즌 5번째 만원(1만4천300석)사례로 경기장 밖에서는 3천여명의 야구팬들이 입장을 하지 못한 채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靑 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한승수총리도 곧 사의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전원이 사의 표명을 한데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도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쇠고기 파동에 따른 여권의 인적쇄신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쇠고기 파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청와대 수석 7명과 대변인이 류우익 대통령실장에게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국민여론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장이 현재 사표를 받아서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실장이 일괄사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류 실장의 사의표명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두 차례 사의표명을 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한승수 총리를 포함한 내각도 금명간 일괄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油彈' 맞은 무안공항

유가 폭등·中 지진 여파 국제선 운항 감편 위기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등으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한 무안 국제공항이 유가 급등, 중국 지진 때문에 오히려 국제선 운항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했다.

6일 항공업계와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상하이 간 정기노선을 주 7편(매일 1편) 운항해 온 동방항공이 다음 주부터 5편을 줄여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편만을 운항할 예정이다.

무안~타이베이를 주 2편 운항하는 부흥항공도 오는 7월부터 1편이나 또는 2편 모두를 한시적으로 운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무안~김포를 1일 1편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최근까지 하루 2편으로 증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했다.

이처럼 항공사들이 항공편 감편을 추진하는 것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수송비 부담이 커진데다 중국 쓰촨성 지진사태와 장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탑승률은 3~4월 60%대였으나, 5월 들어 53% 수준으로 떨어졌고 6월부터 비수기까지 겹쳐 하락 추세다.

이에 따라 주 19편, 월 80여회 운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월 50여 회로 절반 가까이 격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폭등과 중국 지진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이 커진 항공사들이 비수익 노선을 줄이고 있다"면서 "다행히 무안공항의 경우 광주 공항 국제선 이전 덕분에 국내 다른 공항보다 타격이 적지만 향후 유가폭등세가 계속되면 운항을 포기하는 항공사가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52개월 만에 최고

외식물가와 학원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5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 상승했다. 이런 상승률은 2004년 1월의 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과 학원비, 국제항공료, 유치원 납입금 등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로 구성되는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같은 달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9%)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 가격 인상으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고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단체 여행비, 국제 항공료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학원비는 올해 신학기에 상향 조정된 것이 유지되고 있어 상승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외식의 경우 서민들이나 청소년이 많이 먹는 라면(16.2%), 김밥(16.1%), 아이스크림(15.0%), 자장면(14.0%), 피자(13.2%), 짬뽕(12.0%), 볶음밥(9.8%), 칼국수(9.3%), 튀김닭(7.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고급 외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쇠갈비(1.6%), 스테이크(4.3%), 생선초밥(0.8%) 등의 가격 상승률은 서민이나 청소년의 외식물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연합뉴스